

#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시민 의견 묻는다

광주 시민권익위, 오늘 광주시청서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30일~다음달 10일까지 군·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실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28일 기

간담회를 열고 “29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찬반 토론이 아니라 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재형 조선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 서정훈 공항 논의 특별위원장,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원, 국강현 공항소속피해대책위원장, 최완선 광주대 교수, 송운만 광주

관광협회 사무국장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다.

시민권익위는 민간공항 이전 방안과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 조사도 진행한다. 여론 조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2500명이 대상이다.

여론 조사 문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이전 시기, 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 시 통합 공항의 명칭 등이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정책 권고를 하고 이 시장이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근 광주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 전남지역 후보지역의 반대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전남도와 맺은 협약대로 내년에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영태 위원장은 “2년 전 시도가 합의했지만,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하는 가운데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민간공항만 넘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가 나와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 이번 여론조사를 해도 결과가 뻔한 게 아니냐고 한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참고 자료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알려야 한다.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표본도 많이 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가정양립본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8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15개 기업·기관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여

성인력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수혜자 급증

올 융자실행률 90%까지 상승

전남도가 자격기준을 낮추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0%를 넘지 못했던 융자실행률이 올해 90%까지 상승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0월 1일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예산액 500억원 중 90%에 달한 450억원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대출했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행률은 2017년 69.6%, 2018년 52.2%, 2019년 61.1% 등으로 최근 3년간 7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가 기금 사용을 희망한 농가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혜자가 늘어났다. 과거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를 받아 매년 1월 대

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 착공시기가 제각각이고 사업대상자 중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자주 발생해 실행률이 낮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민이 필요할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신청자격도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별로 뒀던 배정 비율을 없애고, 선착순으로 사업을 완료한 농업인 등을 우선으로 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융자 실행률을 끌어올렸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연말까지 올해 자금신청이 가능한 농어를 찾아 융자실행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투자 줄 잇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체들

광주시-AI헬스케어 기업·협회  
45~47번째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동궁빌딩 6층 ㈜뉴로젠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전문가인 ㈜뉴로젠과 테크하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각각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45~47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법인 및 지역사무소 설립, 협회는 AI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박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심기준 회장, 이세환 부회장, 뉴로젠의 권영혁 대표이사, 박종성 기술총괄 CTO, 테크하임 이원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를 위해 관련 의료 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뉴로젠(구 ㈜인포메디텍)은 때늦은 치매 진단으로 고통받는 치매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유발 유전자 및

뇌 영상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치매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인공지능 기반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진단 전문기업이다.

테크하임㈜은 단국대학교 병원 및 부천성모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국내외 2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영상 전송저장 시스템(PACS)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뉴로젠은 인공지능 기반 치매 조기진단 분야, 테크하임㈜은 의료영상 처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각 광주법인 및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AI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나서는 등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 조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설립 협력 및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신설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민주화운동기록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협력 추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8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근현대사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동의 노력 ▲근현대사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력 ▲공동사업 기획 및 추

진 ▲기록물의 교환 및 기관시설의 편의제공 등 두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16일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울특별전 개최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F 2020 GWANGJU FRINGE festival**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 광주거리예술축제

10.31 토 - 11.1 일  
5·18민주광장 일대

11.7 토 - 11.8 일  
5·18민주광장 / 충장로 일대

사전예약 등 관람안내 | 홈페이지

광주거리예술축제.kr

## 광주시, 한국판 뉴딜 연계 첨단 안전산업 뉴딜협약체 발족

광주시가 28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첨단 안전산업 뉴딜 협약체 발족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그린·융합시대에 대응한 신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시민안전산업협의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전문기관과 타 지역 전문가는 온라인, 지역기관과 대학은 직접 대면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안전산업협의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등 중앙 산하기관과 전문가,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및 교수, 지역 연구기관, 지역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인 김인수광주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아래 정책·연구·교류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정책분과는 행안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확대 및 거시적 방향과 정책수립, 연구분과는 안전분야 이슈를 선도하는 중대형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 과제 발굴·기획, 교류분과는 산·학·연·관 유기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는 협의회가 안전산업 핵심 거점 네트워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추진할 중점 안전분야 이슈와 재난안전컨트론타워, 인공지능 플러스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과 실증과제 발굴 등을 중점 논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